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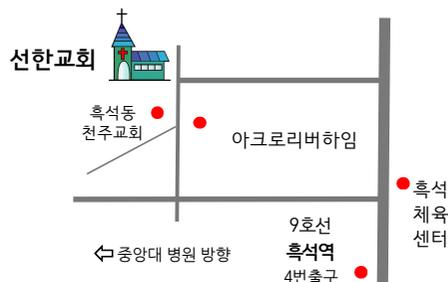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1부 주일 오전	9:30		
2부 주일 오전	11:00	믿음의 씨앗 (유아부)	오전 11:00 여호수아회 오후 2:00
3부(청년) 오후	1:00	선한 꿈 (유초등부)	오전 11:00 요셉회 오후 2:00
주 일 오후	3:30	파워틴 (청소년부)	오전 10:00 바울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년부	오전 1:00 루디아회 오후 1:00
금 요 기도 회	금요일 저녁 8:30	비전위십	오전 2:0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셀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역자	담임목사 임춘배	국내선교사 오인숙, 한배선
	교육목사 정용준	협력교회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전임전도사 윤영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호남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퇴장로	고상돈, 김대희	해외협력선교사 김만조, 이금춘, 조나단
	박희태, 유신웅	
	조윤익	
장로	이태수 (집사장)	관리장로 손석규
	박영근, 윤호중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계승, 편도선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어	너희는 강하게 하라 (대하 15:7)		
실천사항	Be strong and do not give up		
	믿음의 선포	제자의 삶	선교사의 삶
삶의 방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문 1:18)



담임목사 임춘배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인도 : 임춘배 목사
	3부 오후 1시		인도 : 정용준 목사
1, 2부		3부(청년)	
기원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양과 경배	64장 (통일찬송가 13장)		
교독문	교독문 21번 (시편 34편)		
찬양과 경배	218장 (통일찬송가 369장)		
기도	박영근 장로		
찬양	드림성가대		
말씀봉독	빌레몬서 1장 1~21절		요 6:51~56
설교	빌레몬에게 쓴 편지 (임춘배 목사)		내 안의 틀을 깨면 연게 되는 것 (정용준 목사)
헌금	헌금송 : 드보라회(이혜경 권사)		
환영 및 광고	인도자		청년부 회장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부르심		삶의 예배
축도	임춘배 목사		정용준 목사
성도의 교제	다함께		

주일오후	사회: 임춘배 목사		
찬양	JOY AND		
기도	김석범 집사		
성경봉독	이사야 1장 1~20절		
말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임춘배 목사)		
광고 및 축도	임춘배 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시 50편 1~15절)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안내**
 - 1)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 2) 오늘 점심 봉사 부서는 요셉회입니다.
 - 3) 교회헌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 4) 주차 안내: 중앙대 정문 주차장 이용
(네 시간 주차: 2천원권 / 네 시간 이상 주차: 5천원권).
* 주차권은 교회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전교인 산기도**

일시: 6월 6일(화) 오전 11시
장소: 청계산 기도원
* 개인적으로 간단한 점심 식사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 침례교연합기도회**

2023 전국침례교회 연합기도회(Rise Up Baptist)가 있습니다.
* 일시: 5월 29일(월)~6월 9일(금) / 매일 저녁 8시
* 유튜브 라이브 방송: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 전교인수련회**

2023년 전교인 수련회 참석 신청을 받습니다.
1층과 2층 로비에 있는 신청서에 이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날짜: 7월 30일(주일)~8월 1일(화)
* 장소: 경기도 양평 KOBACO 남한강 연수원
- 2024년 비전트리플**
 - * 신청 마감: 6월 11일(주일)까지
 - * 장소: 런던, 파리 * 인원: 15명(초5~청소년)
 - * 일자: 24년 2월 1/2 ~ 11/12일(10박 11일)
 - * 비용: 350만원 (체류비 200, 항공비 150. 항공료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도록.

찬양	오 신실하신 주(393장)
본문	예레미야애가 1장 1~2절
말씀	<p>예레미야애가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을 때 예루살렘성이 파괴되고 여호와와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을 슬퍼하며 지은 시예요. 심판은 받아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참담한 모습과 자신의 죄에 대한 후회와 탄식을 표현하고 있어요.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당시 강한 나라였던 바벨론을 사용해 유다를 심판하신 것이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번영했던 예루살렘의 거리에는 이제 사람이 없어요. 모든 나라로부터 존귀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이 지금은 노예처럼 하찮은 취급을 받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함락되던 날, 그동안 친구 나라였던 에돔이 앞장서서 유다를 배신하는 일도 있었어요(시 137:7). 유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이 적이 되었고, 누구에게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었지요. 바벨론은 백성의 재산을 약탈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전을 불태우고 그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까지 다 가져갔어요. 백성은 배고픔 때문에 자식까지 잡아먹었고(2:20),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니다가 결국 성안에서 죽는 안타까운 일도 일어났어요(1:19). 하나님의 자비가 떠난 유다의 상황은 이처럼 비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이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다가 온전히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고(렘 25:12), 유다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떤지 오늘 본문이 잘 알려 주고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기쁨과 회복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이 있어요(요1:4)</p>
나눔	<p>1)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은 유다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를 찾아 보고, 이들의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야기해보세요(1절).</p> <p>2) 죄를 깨닫고 회개했지만,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자신에게 실망한 적이 있나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p>
가족미션	스포츠, 게임, 영화 보기, 외식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아 보세요. 그 일을 '함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 보세요.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해도 좋아요.
기도	

제 목

빌레몬에게 쓴 편지 (론 1:1~21)

서 론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 본 론
- 빌레몬에게 한 부탁
 - 서론: ①저자: 바울 ②수신자: 빌레몬 ③기록 연대: AD 60년경 ④기록 목적: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도망친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 줄 것을 청원함.
 -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 (5~7, 17절)
 - 로마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 (9, 10절)
 - 바울의 부탁: ①명하지 않고 사랑으로써 간구함(9절) ②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지 않음 ③간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는 내 심복임(10, 11절) ④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 받는 형제로 대하길(16절) ⑤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18절) ⑥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21절)
 - 교훈
 -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
 -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준 만남이 있는가?
 - 어떤 만남이 도움을 주는 만남이라고 생각되는가?

결 론

사람들과의 만남 중에 아픔을 주지 않고 선을 베푸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배 기도	박영근 장로	편도선 장로
2부 예배 헌금	서창덕 집사	심인섭 집사
오후 예배 기도	김석범 집사	백미경 집사
주 방 봉 사	요셉회	마리아회

매일 Q.T.		진노의 날에 임하는 괴로움과 외로움	날짜 : 6월 5일 월요일
찬양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본문	예레미야애가 1:12~17		
말씀요약	주님이 진노하신 날에 유다를 괴롭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십니다. 죄악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유다를 넘기시니, 예레미야의 눈에서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립니다. 시온이 두 손을 펴지만 그를 위로할 자가 없고, 사방의 대적들로 인해 예루살렘은 불결한 자가 됩니다.		
목상질문 1	심판의 극심한 고통 1:12~15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이 겪은 고통은 어느 정도였나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죄가 내게는 없는지 살펴보세요.		
목상질문 2	위로자가 없는 예루살렘 1:16~17 심판받은 예루살렘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누구에게 위로받으려 하나요?		
한절묵상	예레미야애가 1장 16절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생명을, 하나님의 '떠나심'은 파멸을 낳습니다. 예루살렘이 통곡하는 이유는 위로와 생명의 하나님이 멀리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기쁨과 부를 누린 것은 그들의 강성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자리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집니다. 사랑과 위로의 부재는 사람을 외롭게 하고, 하나님의 부재는 인생의 현재와 미래를 허무하게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삶이 송두리째 무너진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게 하소서. 심판의 고통이 힘겨워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끝내 붙들게 하소서.		

개인성경공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찬양과 기도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새 259)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목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2차 대전 당시, 히틀러 치하의 나치에 의해 600여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이 희생됩니다. 전 유럽에 있는 유대인 중 절반이 넘는 사람이 희생된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에 관여된 인물로 아돌프 아이히만(Adolf Eichmann)이 있습니다. 그는 나치 친위대 중령으로 유대인 학살에 직접 관여한 인물입니다. 전쟁이 나치의 패배로 끝나자 아이히만은 아르헨티나로 도망했습니다. 약 15년간 숨어 지내던 그는 1960년 이스라엘 정보국에 체포되어 전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이히만이 체포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흉악한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상상했습니다. 반인륜적인 끔찍한 일을 행한 반사회적 인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정에 나온 그는 지극히 평범해 보였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아이히만의 이웃들은 그가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히려 매우 가정적이고 선량한 사람이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아이히만의 정신을 감정한 의사들 역시 그가 매우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아이히만의 재판을 보며 '악의 평범성'(the banality of evil)이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타고난 악마성을 가진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아이히만 같은 악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악을 악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자신의 행동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나누기	예레미야애가 2:1~10
목상포인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날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악인과 죄악을 파멸 시키십니다. 아무리 견고한 요새도, 거창한 종교적 형식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살길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죄인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이 값진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삶의 모습이며, 참된 예배의 시작입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목상	두 번째 애가를 시작하며 예레미야가 '슬프다'라고 탄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1절)
적용하기	최후 심판 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부여될 하나님의 진노는 어떠할까요? 그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기도하기	저희는 모두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분노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기도	

찬양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본문	예레미야애가 2:18~22
말씀요약	시온은 밤낮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 얼굴 앞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기진한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해 주님을 향해 손을 들어야 합니다. 여인이 자기 아이를 먹고 제사장과 선지자가 성소에서 죽임당해도 주님은 긍휼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목상질문 1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할 이유 2:18~19 예레미야가 시온의 성벽까지도 기도에 참여하라고 요청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견디기 힘든 환난의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사방에서 물려온 두려운 일들 2:20~22 예레미야가 목격한 예루살렘의 참상은 어떠했나요? 감당하기 힘든 환난이 겹겹이 닥칠 때 나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나요?
한절목상	예레미야애가 2장 18절 무너뜨리시는 분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보시고 그들에게 돌이킬 것을 거듭 촉구하시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십니다. 무너진 삶의 현장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바라보는 것'과 '눈물의 기도'입니다.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나의 자리를 적시는 인생의 하나님 은혜의 물결에 젖는 인생이 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크고 참단한지 깨닫습니다. 작은 이익이나 잠깐의 쾌락을 위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죄로 인해 두렵고 절망스러워도 위로와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제 마음을 쏟아 놓게 하소서.

찬양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본문	예레미야애가 1:18~22
말씀요약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유다는 그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유다의 반역이 컸기에 환난을 당해 집 안팎에 죽음이 있습니다. 유다에게는 위로자가 없고, 원수들은 주님이 유다에게 행하신 일을 기뻐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재난을 기뻐하는 원수들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패망하길 간구합니다.
목상질문 1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결과 1:18~20 예레미야는 무엇 때문에 애를 태우고 마음이 상한다고 고백했나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나의 행위는 어떠한가요?
목상질문 2	유다의 원수들에 대한 간구 1:21~22 유다가 당한 재난을 원수들이 기뻐하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나요? 재난 당한 사람에 대해 성도는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한절목상	예레미야애가 장 19절 하나님의 진노에서 목숨을 건질 사람은 없습니다. 동맹국들은 예루살렘의 고통을 외면하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수고는 헛됩니다. 모두 힘을 모아도 하나님 진노를 막을 수 없고, 모두 꾀를 내어도 하나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죄인을 진노에서 건져 냅니다. 죄인은 자기를 도울 사람을 찾을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죄로 인한 지체의 고통을 보며 정죄하고 판단했던 제 악함을 회개합니다. 애끓는 심정으로 묵묵히 기도하며 제 내면의 깊숙한 곳까지 돌아보게 하소서. 공동체의 죄악에 대해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매일 Q.T.		최악에 부어지는 두려운 진노	날짜 : 6월 7일 수요일
찬양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본문	예레미야애가 2:1~10		
말씀요약	진노의 날에 주님은 그분의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야곱의 거처를 삼키시며, 모든 뿔을 자르십니다. 원수같이 활을 당기시고, 대적처럼 죽이시며, 진노를 불처럼 쏟으십니다. 초막과 절지와 제단과 성소를 버리고 성벽과 성문을 허무시니,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목시를 받지 못합니다.		
목상질문 1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심 2:1~5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쏟아부으신 진노는 어떠했나요? 원수같이 여겨 진노하실 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내 죄는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성전과 성벽을 무너뜨리심 2:6~10 하나님이 성전과 성벽을 무너뜨리신 결과는 어떠했나요? 사랑하는 자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한절목상	예레미야애가 2장 4절 하나님이 우리편이 아니시면 그보다 두려운 재앙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신 하나님은 본래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던 하나님, 이스라엘 앞에 군대 대장을 보내시던 하나님입니다(출14:14; 수 5:14). 의로운 재판장인 그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칼을 갈고 활을 겨누십니다(시 7:11~12).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기를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고통과 슬픔이 삶을 뒤흔들 때 제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은 아닌지 속히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심판을 위해 펼쳐지기 전에 제 마음과 삶에서 죄악을 몰아내게 하소서.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Q.T.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비극	날짜 : 6월 8일 목요일
찬양	찬송가 343장 시험받을 때에		
본문	예레미야애가 2:11~17		
말씀요약	예레미야는 눈이 눈물에 상하고 창자가 끊어질 듯 고통스러워합니다. 유다가 패망해 어린 자녀들이 길거리에서 기절함을 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헛된 목시를 보고 유다의 죄악을 알려 주지 않았습니. 예루살렘이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일입니다.		
목상질문 1	예레미야가 우는 이유 2:11~13 예루살렘 멸망 때 어른들의 죄악이 불러온 뼈아픈 비극은 무엇인가요? 다음 세대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나요?		
목상질문 2	거짓 목시에 속은 이스라엘 2:14~17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어떤 역할을 했나요?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내가 주의 깊게 경청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한절목상	예레미야애가 2장 15절 성도가 누리는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예루살렘의 영광과 존귀는 그들이 받아야 할 당연한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견고한 약속도 예루살렘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자기 것으로 삼는 교만한 백성은 그분이 밟으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시선은 자기 영광에서 하나님 영광으로 옮겨 갑니다. 주님이 흥하시려면 나는 쇠해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저와 교회의 끊어 버리지 못한 죄악 때문에 다음 세대가 믿음에서 벗어나 비참하게 남겨질까 두렵습니다. 지금 눈물의 바다를 건너며 죄를 씻기고 저를 거룩하게 빛으시는 하나님과 마주하게 하소서.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않는 교회 되게 하소서.		